"방사능 측정기 걸고 다니며 공포와 싸우고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위험 알리러 한국 찾은 日 쿠마다 아카리 양

지난 6일 영광 영산선지에서 한일 청소년 에너지 캠프가 열려 쿠마다 아카리 양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돼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릴 거예요. 원자력의 위험을 직접 보고 느낀 저희의 경험을 많은 사람과 공유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요."

광주환경운동연합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후쿠시마 학생 8명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광주와 영광에서 한일 청소년 에너지 캠프에 참여한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경험을 한국 청소년들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지역 근처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다. 전 세계에서 관측된 지진 중 4번째이자 일본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쿠마다 아카리(여·17)양은 당시 중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부모님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 순간 지진이 감지됐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벽이 흔들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가 요동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기고 공포에 휩싸인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땅이 눈앞으로 솟아 올라와 모든 게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몇 차례 지진을 겪어 봤지만 그때는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엄청난 충격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지만 폐허가 된 모습에 망연자실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났으며 담벼락과 천장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 9.0의 강진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후쿠시마 사람들은 지진피해가 워낙 커서 원전은 신경쓰지 못했고, 정부 역시 원전이 내진설계돼 안전하다고 안심시켰다. 거짓말이었다. 지진이 불러온 쓰나미 앞에 원전은 무기력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전기를 생산하던 원자력발전소가 '방사능'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쿠마다 양은 폐허가 된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밖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알게 됐다. 집 밖에서 그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순간 방사능에 오염된 수증기가 후쿠시마 마을을 뒤덮었다는 사실을. 이때까지도 정부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다행히 그녀의 가족은 방사능 피폭 검사에서 안전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마을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후쿠시마 지역 초·중 학생들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목에 걸고 다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워야 했다.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물과 최대한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다. 물론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됐다. 가족·친구 같은 가까운 사이라도 누가 방사능에 노출됐을 지 모른다는 생각에 악수나 포옹을 꺼려하며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져갔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노출된 지 3년. 일본정부는 '원전의 안전과 효율'을 내세우며 원전 재가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쿠마다 양은 1986년 체르노빌원전사고가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역시 더 많은 시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쿠시마사고는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쿠마다 양도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히려 연기자가 돼서 더 많은 이들에게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다고 다부지게 말했다.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은 국가를 넘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지금은 일본이 피해를 겪고 있지만 미래에 어떤 사고가 누구에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죠. 한국과 일본이 방사능 위험을 깨닫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영광=글·사진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KB국민은행 호남본부 어르신 삼계탕 봉사

KB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정순일) 임직원과 대한 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회장 최상준) 봉사원들이 8일 임동 광주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말복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이공대, 삼성전자 맞춤형 인력양성 수료식

조선이공대학교(총장 김왕복)는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주)와 맺은 산학협약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33명, 전화상담 인력양성 트랙) 수료식을 가졌다.

코레일-재향군인회 녹색생활 실천 협약

코레일 광주본부는 8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본부 2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재향군인회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코레일 광주본부 제공〉

아흔의 원로학자 사학을 되짚다

조용기 우암학원장 '한국 사학 수난사' 출간

아흔이 다 된 원로 교육자가 사학(私學)의 발자취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학인의 노력과 반성을 담은 책을 펴냈다.

우암학원(남부대·전남과학대·옥과고·우암문화재단) 설립자이자 학원장인 조용기(88) 선생이 최근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혼란했던 사학의 상황을 정리한 '한국 사학 수난사'를 출간했다.

올해 미수(米壽)의 나이인 조용기 선생은 90평생 가운데 60여년을 교육에 헌신했고, 지금도 곡성 옥과에서 부인과 함께 23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매일 3시간 이상 독서를 하고, 강의와 집필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년 전에 구입한 양복을 지금까지 입을 정도로 근면과 성실의 대명사인 조용기 선생은 사학 수난사를 불러온 오류를 반성하고, 이를 거울삼아 모든 부분에서 뿌리내린 패배감을 극복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 그동안 권력에 예속당했던 사학인들의 나태와 무력감을 고백한 자기 반성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태동과 사학의 시련,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추적한 1부와 사립학교법 개악에 따른 투쟁과정을 기술한 2부로 나눠졌다. 부록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투쟁기도 눈에 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사학의 시각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사학인들의 발자취와 노력도 담담하게 그려냈다. 어려웠던 시절 체득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거나 '자존과 자립이 없는 존재에는 희망도 없다'는 저자의 인생철학도 곳곳에 엿보인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사학의 변화를 갈망하는 저자의 간절한 기원도 담아냈다.

저자는 "이 책이 꿋꿋하게 세월을 견디며 본연의 가치를 지켜온 사학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지난날을 반성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용기 선생은 전란의 와중이던 지난 1950년 12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곡성군 옥과에서 천막교실 한 채로 교육을 시작,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사학법인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국가원로회의 위원이기도 한 저자는 지난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학교법인 우암학원은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옥과고등학교, 곡성시니어클럽, 우암유치원 우암어린이집, 우암문화재단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청소년자원봉사단, 라오스 출국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013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광주지역 단원 18명을 7~17일 라오스 빡산 지역으로 파견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YVP)은 청소년의 글로벌 능력 향상과 세계적 활동 참여,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활동의 일환으로 해마다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청소년 240명, 지도자 및 의료진 60명 등 모두 300명이 파견됐으며, 광주에서는 15명의 청소년과 3명의 지도자 및 의료진이 함께했다.

이들은 라오스 빡산 지역 청소년시설 개·보수 활동, 환경·위생 교육 및 캠페인, 문화·체육교류활동, 교육지원활동, 전통문화 공연, 바자회 및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김경인기자 kki@

서해안권 자전거순례단 대장정 돌입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서해바다를 달리는 순례행사가 열린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9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서해안권 자전거 순례단 출정식을 갖고 5박 6일 간의 650㎞ 일주를 시작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해양주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 가족 등 70여명은 서울에서 출정식을 갖고 차량을 통해 이동한 후 태안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 일주를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태안~군산~고창~무안~완도~해남~목포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며 해양환경정화활동, 가족에게 편지쓰기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세열기자 hot@

광주 북구 '정신건강사업' 복지부 장관상

광주시 북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2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공모에서 북구보건소의 '초발 정신증 특화 그룹인지치료 및 인지치료 기반 사례관리'가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례관리는 초기 정신증 환자를 집중 관리해 만성화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80명이 참여, 치료 유지율 100%·재입원율 제로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정신질환도 다른 신체질병처럼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관리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국은행, 중학생 60명 대상 '경제캠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나상욱)는 지역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2013년 청소년 경제캠프'를 지난 6일부터 3일간 개최했다.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에서는 청소년의 신용관리와 합리적인 금융생활, 게임으로 알아보는 자산관리 노하우〈사진〉, 영어로 알아보는 경제시사, 재미있는 화폐이야기,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현장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인사

◆법무부

〈보호직공무원〉 ◇4급 전보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노근성 ▲광주소년원장 김현균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고규석(코트라 전문위원)·정광숙씨 아들 영일군 정영준(해양도시가스 사장)·한미옥씨 딸 승민양=10일(토) 오후 1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지하 1층 하모니볼룸.

▲배귀대(경주배씨 광주종친회 부회장·재광 영암향우회 사무국장)·장길님씨 장남 용선군 정용채·김숙희씨 장녀 혜린양=10일(토) 오후 2시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황의순(법무부 범죄예방 협의회 회장)·이정자씨 아들 민군 박병각((주)엠아이텍 대표이사)·한화정씨 딸 주현양=10일(토) 오후 5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동창동문회

▲광상 제12회 동창(회장 전성수) 모임=15일(목) 낮 12 유명회관(금남로 5가 교보빌딩 건너편) 062-512-5574.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모집

▲CAP(Child Assault Prevention·아동폭력예방)교육 전문가=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아동특화프로그램인 CAP(Child Assault Prevention·아동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할 역량있는 일반인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062-385-1391.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정서코칭2급 교육 개설 안내=9일·10일·16일·17일 오전 10시~오후 6시, 대상은 교육에 관심 있는 분, 장소는 협회교육실(광주 북구 두암동 569-16 5층) 062-652-0675, 010-8299-6237.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4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도서관 5층, 양택, 음택·수맥, 나경·입향론, 비결록명당, 장법요강 등 진정한 이론과 현상 영상 강의(책자무료제공) 010-3609-8117, 062-670-2161, 2135.

▲한국노후생애대안학교 7기 학생 모집=장수시대에 50세 이상 중장년이 퇴직 후 자기계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생애준비를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 교육과정은 노후생애 설계, 생활영어, 한시, 웃음 치료, 노인상담심리학. 대상은 노후준비 희망자, 열정있는 중장년, 건강한 은퇴자(선착순 35명) 원서접수 21일(수) 오후 5시까지(합격자 발표 26일 개별통지) 062-223-1357, 010-2646-5023.

▲다음카페-참된 나(?)찾기 학교 무료 교육=우울증, 불면증, 두통, 불안심리, 이명, 환청, 환상, 강박관념, 대인공포증, 가위눌림, 악몽, 자살충동, 신내림, 귀신들림, 정신질환, 신경성질환, 만성난치·금연금주, 악습·가족갈등, 비만·체질교정, 불생불사, 8고해탈, 진리체득, 학습력강화, 최면, 원인을 알 수없는 병등 010-6609-9068.

▲한국웃음협회 회원=건강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부음

▲박인주씨 별세 병호·형중씨 부친상 장인숙·전현숙씨 시부상=발인 10일(토) KS병원장례식장 2분향소 062-960-4444.

▲정순식씨 별세 오태환·광환·공순·금자·애자씨 모친상=발인 10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강양례씨 별세 모춘식·태식·명순·명옥·명숙씨 모친상=발인 9일(금)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박영애씨 별세 최규성(삼성항공여행사 대표)·규홍(전남일보 제작국장)·규삼(사업)씨 모친상 주경숙(순천 왕운중 교사)·이경은(광주 송원여상 교사)·신희숙(산업통산부 사무관)씨 시모상=발인 9일(금) 순천 한국병원 장례식장 010-8612-3654.

▲김순례씨 별세 정성기·풍기·준기·방기·현숙·현미씨 모친상 노삼녀·정인숙·고혜정·유수진씨 시모상 류만지씨 빙모상=9일(금) KS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960-4444.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강성덕 님(여/79세)
子/子婦 : 김광용/안현숙, 광선/박미진
女/壻 : 김정자/고흥만, 춘자/오철호, 행자/서인규 순심/김갑중, 인화/변경진
• 호 실 : 201호 • 발 인 : 8월 10일
• 장 지 : 고흥영남 • 연락처 : 227-4381

故강희주 님(남/76세)
子/子婦 : 강민기/손점남, 민식/문정숙, 민섭/장 아
女/壻 : 강양숙/최정규, 현옥/김병기
• 호 실 : 101호 • 발 인 : 8월 9일
• 장 지 : 나주다도 • 연락처 : 227-4385

故장용준 님(남/59세)
子/子婦 : 장병승임수은병희
未亡人 : 박재순
• 호 실 : 402호 • 발 인 : 8월 9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

故남철형 (남/86세)
子/子婦 : 남중형/김명길, 중민/최의옥, 임미영
女/壻 : 남복순/최재성
• 호 실 : 102호 • 발 인 : 8월 9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6

마음까지 편안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